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잠재된 불안에 대한 작품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안재은

잠재된 불안에 대한 작품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안재은


인 준 서

안재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권기범 

심사위원 이만수 

심사위원 노신경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7년 이후의 대학원 작업을 바탕으로 2020년도 ‘그 곳에서’ 석사 학위 청구전의 작품을 분석하며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감정들 중 불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주제로 선정하여 작업 표현방식을 연구해왔다. 불안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으며 이는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왔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불안은 발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고, 자아의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안에 대한 작품표현을 하면서, 불안은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자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본인이 평소에 느끼는 불현듯 찾아오는 것 같은 불안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와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은 무슨 역할을 할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본 논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불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심리학,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선행 연구되어 온 이론들을 함께 분석해 연구하였다.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본인에게 느껴지는 불안의 의미를 어떤 조형적 특징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 서술되는 본인의 작품은 보이지 않는 감정인 불안으로 인한 공허함과 괴로움을 시각화시켜 대면하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위로의 시간을 주고 있다. 그리고 작품 속 불완전하고 모호한 모습의 불안한 자아의 표현은 우리의 무의식 속 내재되어 있는 불안을 통해 내적자아로 표현함으로써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람자가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해 볼 수 있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불안의 시작은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개인적인 심리

뿐이었지만, 그 개인적인 심리 또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환경에 맞춰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불안을 공통 심리로 확장시켜 본인만의 표현방식으로 타인의 공감 또한 얻을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무의식과 불안	3
2. 작품 설명	7
1) 뼈의 상징	7
2) 불완전한 형상	19
3) 이질적 결합	22
III. 결론	32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안재은, <그 곳에서>, 장지에 혼합재료, 324×130.3cm, 2020 10
- 【작품2】 안재은, <나아가기>, 장지에 혼합재료, 190×240cm, 2020 12
- 【작품3】 안재은, <Living>, 장지에 혼합재료, 130×130cm, 2019 14
- 【작품4】 안재은, <그 곳에 살아있는 것들>, avi, 2020 16
- 【작품5】 안재은, <Living2>, 장지에 혼합재료, 53×45cm, 2019 17
- 【작품6】 안재은, <Endure>, 장지에 혼합재료, 72.7×60.6cm, 2020 18
- 【작품7】 안재은, <Endure2>, 장지에 혼합재료, 72.7×60.6cm, 2020 18
- 【작품8】 안재은, <숨겨진 것>, 장지에 혼합재료, 34.8×27.3cm, 2020 21
- 【작품9】 안재은, <숨겨진 것2>, 장지에 혼합재료, 34.8×27.3cm, 2020 21
- 【작품10】 안재은, <숨겨진 것3>, 장지에 혼합재료, 27.3×22cm, 2020 21
- 【작품11】 안재은, <숨겨진 것4>, 장지에 혼합재료, 34.8×27.3cm, 2020 21
- 【작품12】 안재은, <해치지 않아요>, 장지에 혼합재료, 160×70cm, 2017
..... 25

- 【작품13】** 안재은, <마주하다>, 장지에 혼합재료, 145.5×112.1cm, 2018 ..27
- 【작품14】** 안재은, <가다듬기>, 장지에 혼합재료, 224.4×145.5cm, 2018 ..28
- 【작품15】** 안재은, <등등>, 장지에 혼합재료, 45.5×53cm, 2018 30
- 【작품16】** 안재은, <In>, 장지에 혼합재료, 60×60cm, 2018 31

도판 목차

- 【도판1】** 조지아 오키프, <떨고도 가까운 곳으로부터>, 캔버스에 유화
91.4×101.9cm, 1937,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8
- 【도판2】** 조지아 오키프, <하얀 접시꽃과 숫양(羊)의 두개골, 작은 언덕>,
캔버스에 유화, 76.2×91.5cm, 1935, 브루클린미술관 소장 8
- 【도판3】** 르네 마그리트, <심금>, 캔버스에 유채, 114×146cm, 1960 24
개인소장
- 【도판4】** 르네 마그리트, <불안한 날씨>, 캔버스에 유채, 54×73cm 24
1929, 스코틀랜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선택을 하는 상황과 다양성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각자 내면의 문제 및 개인과 집단, 혹은 집단과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선택과 갈등에서 ‘불안’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인간 내면의 복잡하고 헤아릴 수 없는 저 깊은 심연에서 모든 개인이 제각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기분이 불안이다¹⁾.

연구자는 본래 불안에 대한 심리를 많이 가진 성향으로 불안에 대한 해결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작품표현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표현 연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감정인 불안을 시각화시켜 대면하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불안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감정의 해소와 극복을 위한 작품을 하고 있다. 본인에게 불안은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 감정들 중에서 ‘불안’은 연구자에게 가장 근원적인 주제로 다가온다.

본 논문을 통해, 불안에 대한 여러 선행적 사실을 연구하고 받아들여 본인의 작품에 더 큰 동기부여와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불안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여러 이론들과 사상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불안의 감정을 인지해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고자 하면 불안은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 가능성의 거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불안을 주제로 하여 작품내용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본인의 불안에 대한 생각들과 선행연구

1) 안상혁, 『불안, 키에르케고어의 실험적 심리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p.63

되어온 사실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안은 갑작스러운 감정이 아닌 내면에,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분출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무의식과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세계와 현실로 드러나는 의식의 세계는 분명하지 않은, 흐릿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감정은 깊은 내적공간인 무의식에서 산출된 것이다. 그 감정들 중 불안은 무의식 속에서 큰 자리를 잡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의 방법으로 본 논문의 본론에서 첫 번째로 본인이 생각하는 불안과 무의식에 대하여 서술하며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와 실존주의 철학자 쇠얀 키에르케고어(Søren Kierkegaard, 1813-1855)²⁾의 이론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작품설명 of 첫 번째에서는 본인의 작품에서 주로 형성되는 뼈의 모티브가 본인의 작품에서 어떤 의미의 대상화, 상징성을 가지고 표현되는지 서술하고 두 번째로는 불완전한 형상 표현에 대한 의미와 표현목적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설명 of 세 번째는 연구자의 작품의 특징 중 하나인 이질적인 조합에 대한 이유와 목표를 설명하며 뼈 모티브와 이질적 조합을 이루는 선인장에 대한 본인의 작품에서의 상징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질적 조합과 일치하는 개념인 초현실주의 기법 중 하나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을 설명하고 이전에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 대표적인 작가인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의 작품을 분석하고 비교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며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점을 언급하고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그는 국내에서 '키르케고르', '키르케고어'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되었다. 한국키에르케고어 학회에서는 덴마크 발음에 가장 가까운 '쇠얀 키에르케고어'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하여 본 논문에서도 이 표기를 사용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무의식과 불안

자신이 행동을 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한다. 무의식은 우리도 모르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쌓여온 것으로 삶에 지속적인 압박을 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져 있다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거나 해결해야하는 등의 어떤 순간에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심리적 활동 중, 무의식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경계를 넘어 가장 큰 파동을 가져오는 것은 불안이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³⁾는 “공포와 불안은 깨어 있는 의식에서는 오래 전에 잊힌 듯하나, 어느 순간 느닷없이 우리의 신경조직에 대고 비명을 질러댄다.”라고 말했다.⁴⁾ 그는 모든 심리적 활동은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무의식에 대한 설명의 유명한 예시인 빙산으로 설명하자면, 수면 위에(의식의 영역)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수면 아래(무의식의 영역)의 힘은 무엇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식하고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경우든 무의식의 세계에 잠재되어져 있던 것들이다.

‘불안’은 어느 시대에서든 존재한다. 인간은 본래 불안을 느끼도록 타고났지만, 불안한 사람들 중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문화가 만든다.⁵⁾ 불안은 카멜레온처럼 위치한 곳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

3)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분석의 창시자.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하고 최면술을 행하며,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꿈·착각·해학과 같은 정상 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하여 심층심리학을 확립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4) 슈테판 츠바이크·지그문트 프로이트, 『프로이트를 위하여 : 작가 츠바이크, 프로이트를 말한다』. 양진호 역, 책세상, 2016, p.101

5) 앨런 호위츠, 『불안의 시대 : 역사 이전부터 불안은 존재했다』, 이은 역, 중앙북스, 2013, p.252

타날 뿐,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 무의식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문화적 바탕으로, 각 시대의 특징적인 환경에 맞게 발명품을 만들어왔다. 예를 들면, 밤의 어두움에 대한 불안은 전구를 창조했고,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문에는 단단한 자물쇠가 달려있고 번개는 피뢰침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불안을 원동력으로 발전하고 여러 가능성을 만들어 왔다. 불안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불안은 가능성이 최초로 되비쳐 보이는 현상, 일종의 가능성의 번쩍임 혹은 어떤 두려운 마법과도 같기 때문이다.”⁶⁾

또한, 불안은 자아의 내적 관계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감정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빌미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저절로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인간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안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가능성과 스스로 이전과는 다른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연구자에게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 중 크게 자리 잡혀있는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남으로써 겪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죽음의 두려움은 실존함으로써 당연히 갖게 되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죽음을 실존적 불안의 핵심적 요소로 여긴다. 죽음은 한계가 아니라 ‘던져져 있음’으로 실존적 사태이며 삶의 징표이자 본질이라고 한다. 죽음이란 ‘무(無)’의 상태인 것인지, 존재의 부재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실존은 뒤흔드는 근본적인 불안인 것이다. 또한 죽음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주는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해 사유해볼 수 있다. 실존적 불안에 직면하여 ‘나

6) 『일기』, Bd. III, p.292. (아르네 그렌, 『불안과 함께 살아가기 : 키에르케고어의 인간학』 하선규 역, b, 2016, p.15)

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 본인의 주체성을 성장시킬 수 있다. 불안은 두려움의 감정을 흔들기도 하지만, 이런 혼란은 자아성찰을 하게 됨으로써 가능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연구자의 또 다른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삶에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이 있다. 우리는 본인의 의지로 자신의 취향을 선택하기도 하며, 인관관계를 위한 선택과 진로에 대한 선택 등 삶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본인의 작품연구 과정에서도 또한 연속적인 선택을 필요로 한다. 작품을 만족스러운 완성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 선택과 혼란을 가져오고 불안 또한 발생한다.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일반적이며, 그 불안 속에서의 선택은 객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과 미래의 불확실한 불안은 필연적이고 가능성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존철학의 선구자인 키에르케고어(Søren Kierkegaard)⁷⁾ 또한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라고 말하였다. 실존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궁극적 관심사를 자각하게 되면 불안해진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불안은 내면의 자기화를 만드는 큰 힘이며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내면관계의 실패는 불안을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체성을 찾아 나아가려 한다. 불안은 내면의 자기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⁸⁾

또한, 의식의 차원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선행하는 자유

7) 덴마크의 종교 사상가. 실존주의 사상의 선구자 중 한 사람. 그는 자기의 체험과 사회적 변동 속에서 자기 자신에의 반성에 의한 단독자로서의 삶의 태도와 주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실존'적 삶의 태도라는 사상을 육성해 가면서, 미적 향락에 의한 미적 실존을 배제하고 또한 자기를 보편화하는 길에 선 윤리적 실존을 부정하여, 신앙에 의한 자기 구제의 종교적 실존을 최고의 삶의 태도라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철학사전, 2009, 임석진, 윤용택, 황태연, 이성백

8) 안상혁, 『불안, 키에르케고어의 실험적 심리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p.113

의 가능성은 불안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알려주는 어떤 예감이다. 자유의 가능성이 일깨워질수록 ‘할 수 있음’의 가능성은 불안의 상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불안을 만들어내는 그 무언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는 상황과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⁹⁾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선택을 한다. 가능성을 찾기 위해, 자기 자신과 관계하며 스스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연의 존재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불안은 가장 고유한 각자의 개별적 존재 가능성을 드러내 준다. 실존주의에서 인간은 나 자신을 완전히 결정짓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성장해 나가면서 실존하기 때문에 불안으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다.

이렇게 무의식 속의 불안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원동력 효과를 준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작품 연구를 하고 있다. 추후에 서술되는 본인의 작업은 무의식 속에서 가장 큰 자리를 잡고 있는 불안을 시각화 시키고 있다. 누구든지 내재하고 있는 당연시되는 본질적인 감정인 불안을 인간의 근본적이고 존재의 상징의 의미가 부여되는 빠르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불안을 내재한 내적자아를 불완전한 자아로 표현함으로써 불안으로 인한 자아성장의 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9) 안상혁, 『위의 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p.214

2 . 작품 설명

1) 뼈의 상징

본 연구자의 작품의 주된 모티브는 뼈와 선인장이다. 이러한 두 개의 모티브를 상징을 가진 대상으로 만들어 표현하였는데, 작품의 효율적인 분석과 설명을 위해 뼈의 상징, 불완전한 형상, 이질적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뼈 자체가 아닌 뼈로 유추할 수 있는 형태를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뼈의 특징 중 색감과 표면의 느낌을 부여할 수 있는 질감을 유사하게 표현하고 형태는 본인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뼈는 우리 몸의 가장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뼈는 죽음 이후에 몸이 분해되면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소한 경험으로 뼈를 실제로 보게 된다면 죽음을 연상시키기 쉽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에서 뼈는 죽음의 상징보다 우리의 존재에 중심이라는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 생명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여 존재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¹⁰⁾ 또한 뼈를 죽음의 의미만이 아닌 다른 상징을 포함하여 작업을 하였다. 그녀의 작업은 주로 두개골, 짐승의 뼈, 꽃 등의 자연을 확대시킨 것들이었다. 뼈를 소재로 한 작업들은 뉴멕시코의 사막에 흩어져 있는 뼈들을 수집을 하며 시작되었다고 한다.

10)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년 11월 15일 ~ 1986년 3월 6일)는 미국의 화가이며, 자연에서 그녀의 많은 생각을 찾아내기로 유명하였다. 그녀가 자신의 경력을 통하여 창조한 꽃의 사물화는 그녀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이었다. 그녀는 또한 동물의 유골과 사막의 풍경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유명해졌다. 오키프 여사는 고단적으로 인간화한 양식과 강하고 선명한 색으로 칠하였다. 그녀의 형상은 육육적으로 부드럽고 간단하였고, 가끔 높은 추상적 디자인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위키백과



【도판1】 조지아 오키프, <멀고도 가까운 곳으로부터>, 캔버스에 유화, 91.4×101.9cm, 1937,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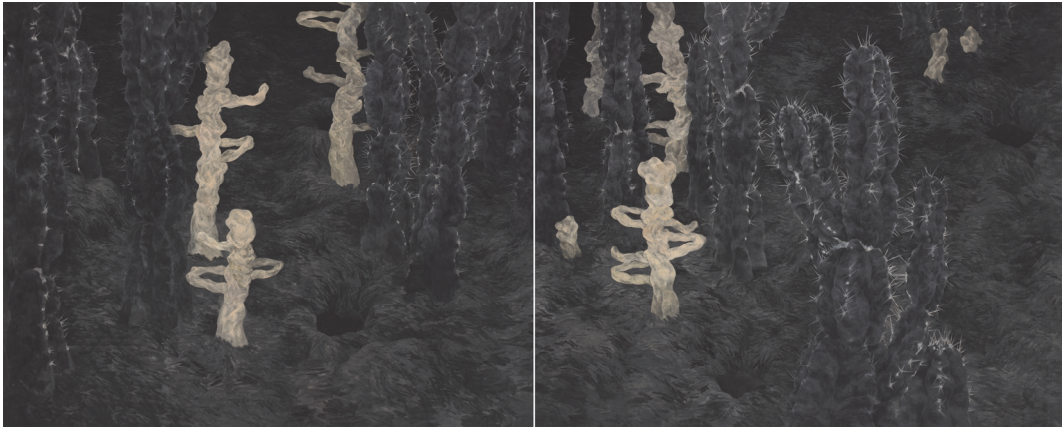
【도판2】 조지아 오키프, <하얀 접시꽃과 숫양(羊)의 두개골, 작은 언덕>, 캔버스에 유화, 76.2×91.5cm, 1935, 브루클린 미술관 소장

그녀는 사막에 있는 동물의 뼈를 보며 살아있는 동물보다 더 강렬한 생명력을 느껴, 뼈의 모티브를 생명의 상징으로서 작품에 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의 작품은 주로 사막을 배경으로 하여 하늘 위에 동물 뼈가 공중에 떠 있는 구도로 표현하였다.

본인이 뼈의 형상화를 작업에 표현하는 것은 본인에게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선인장 매개체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학부생 당시에 선인장이라는 매개체를 내재적 불안을 가지지 않은 강인함을 형상화한 오브제로 나타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강한 선인장이 인간과 같다면 어떤 형상일까’라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을 뼈를 이용하여 접근하였다. 그 과정에서 강인한 존재도 그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고 이러한 생각은 연구자가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인간도 공통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과 연결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본인의 작품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뼈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인

불안으로 형상화가 되었고 불완전한 자아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확실한 형태의 뼈가 아닌 뼈를 색감과 질감으로 유추할 수 있는 형상을 통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불완전한 자아는 내재적 불안을 가진 자아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재적 불안을 가진 자아는 일반적이다. 모든 인간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존재하기 위해 불안에서 벗어나 발전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불안을 내재하는 불완전 형태를 뼈의 성질과 유사하게 표현함으로써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든 살아가는 단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자아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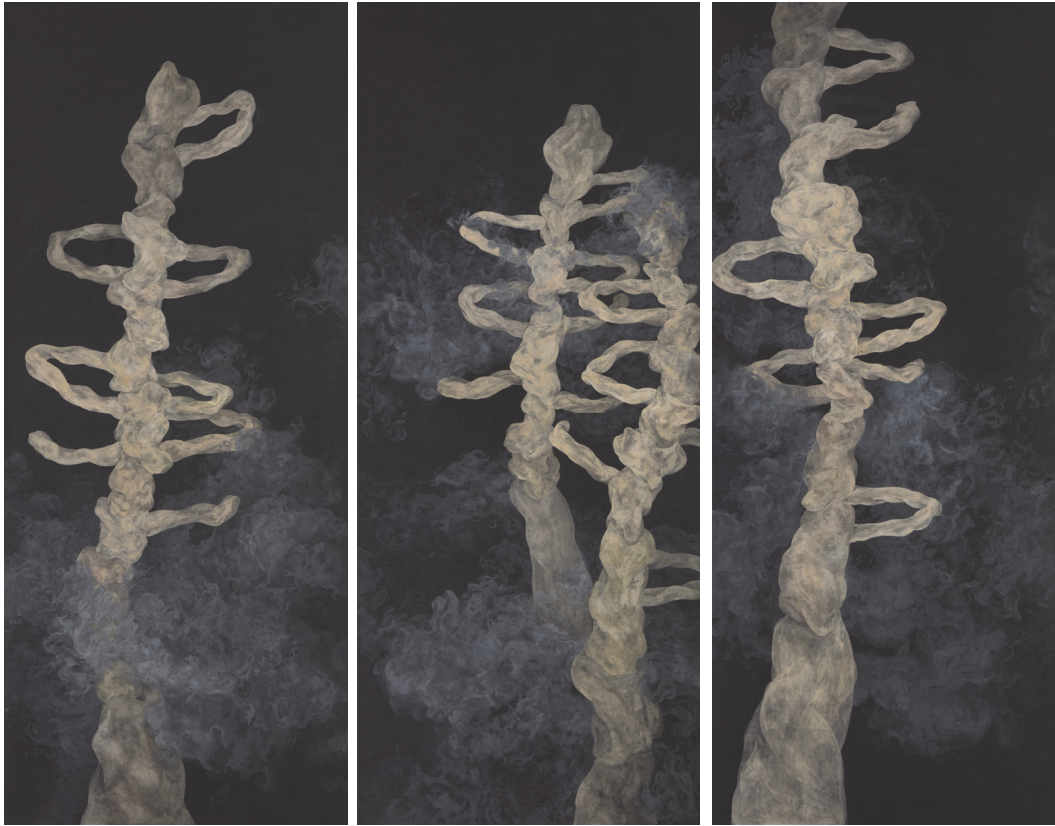
【작품1】 안재은, <그 곳에서>, 장지에 혼합재료, 324.4×130.3cm, 2020



<확대 사진>

연구자의 그림 **【작품1】**은 여러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어둡고 막막해 보이는 풍경과 같은 공간으로 표현되어진다. 그 어두운 공간에는 빠지면 위험할 것 같은 캄캄한 구렁텅이와 같은 형상과 흑색의 복잡한 수풀과 같은 곳에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선인장들이 있다.

본인은 이러한 풍경을 불안감 속에 갇혀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순간을 공간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곳곳하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불완전한 모습의 생명체를 표현하였고 그 생명체를 선인장과 대조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함께 배치하였다. 연구자에게 선인장은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만 같은 강인함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겉모습을 보고 불안과 두려움 없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불완전한 자아인 뼈 모티브를 한 생명체도 또한 곳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선택을 하기 전의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불완전한 자아라고 표현하고 그 모습도 또한 강인한 모습의 하나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2】 안재은, <나아가기>, 장지에 혼합재료, 190×240cm, 2020

【작품2】는 같은 크기의 화판을 3개를 제작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였다. 상대적으로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화판의 크기로 제작해, 불완전한 자아의 모습을 실제 사람과 유사한 크기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통하여 관람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더 작품에 본인을 투영되게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의도로 접근하였다. 또한 설치하는 방법을 벽에 붙이지 않고 다음 사진과 같이 관람자가 전신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배치함으로써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배경을 어둡게 표현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 등의 불안감으로 인해 쉽게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보일 듯 안보일 듯 하는 답답함의 오묘한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 연기를 같이 표현하였다.



<전시전경> <나아가기>, 장지에 혼합재료, 190×240cm, 2020



【작품3】 안재은. <Living>, 장지에 혼합재료, 130×130cm, 2019

【작품3】은 【작품1】과 유사한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블랙과 화이트 등 무채색을 기초로 하는 모노톤으로 척박해 보이는 숲 속에서 불완전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불완전한 생명체들에게 생동감을 주어 좀 더 생명체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영상으로도 제작해 보았다.

【작품4】 영상은 뾰의 형상이 바람에 의해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식물의 새싹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성장해가는 모습을 연출하여 생명체라고 연상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평면회화인 【작품3】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After Effects’라는 영상편집 프로그램과 ‘Photoshop’ 사진 편집기능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작품3】의 그림에서 숲 속의 생명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연출하기 위해,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경과 뾰 형상을 분리한 후 여러 레이어를 생성해 다수의 장면들을 만들고 After Effects 프로그램의 반복효과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명체의 형상으로 더 표현되도록 또 다른 자연의 생명체인 새를 그려 넣었다. 작은 새의 모습은 그들 사이로 저 형상들이 익숙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근처에 날아다니는 장면을 표현하여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새는 날개를 활짝 편 모습, 접은 모습 등 여러 동작의 모습을 목탄을 이용해 드로잉 하여서 영상편집 프로그램에 삽입해 제작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숲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바람소리와 새소리, 곤충소리를 삽입하여 좀 더 자연스러운 숲의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는 효과를 주었다. 다음 사진들은 영상 일부분을 캡처한 사진들이다.



【작품4】 <그 곳에 살아있는 것들>, avi, 2020, 영상 일부 캡처본



【작품5】 안재은, <Living2>, 장지에 혼합재료, 53×45cm, 2019

【작품5】는 이 전에 서술하는 작품들과 다르게 여백을 많이 주어서 오히려 불완전한 자아인 생명체만을 표현하였다. 환경에 관여되지 않는 근본적인 것만을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배경색을 다른 작품의 모노톤과 다르게 표현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색감과 유사하게 함으로써 배경과 함께 자연스러워 보이는 효과를 주었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작품6】 안재은, <Endure>, 장지에 혼합재료, 72.7×60.6cm, 2020



【작품7】 안재은, <Endure2>, 장지에 혼합재료, 72.7×60.6cm, 2020

2) 불완전한 형상

연구자의 작업에서 불완전한 형상의 표현은 미완의 의미를 뜻하지 않는다. 불완전이란 연구자에게 나아가는 과정이자 가능성을 의미한다. 연구자의 불완전한 형상의 작업은 인간의 근본적인 뼈를 본질적 감정인 불안으로 형상화하는 것인 불완전한 자아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불완전한 자아는 내재적 불안을 가진 자아로 상징화 시켰지만, 이러한 내재적 불안을 가진 자아는 일반적인 존재인 것이다. 모든 인간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존재하기 위해 불안에서 벗어나 발전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불안을 내재하는 불완전 형태를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든 살아가는 단단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의 자아로 표현한다.

불완전과 반대인 완전한 상태는 정말 완벽한 대상이고 그것의 의미 또한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작품 내에서 완전한 상태의 형상은 이것이 가장 완벽한 상태인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관람자가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완전한 상태의 형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을 감각의 대상 이전에 지각되어진 내용으로 인식할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작가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관람자의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그 '형상'이 내포한 내용을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위험에 대한 방지의 일환으로 어떤 대상을 익숙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로 표현하여 관람자에게 오히려 대상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연구자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불완전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관람자의 일반적인 관념으로 판단을 끝내기 전에 관심을 이끌어 의미의 호기심을 부

여한다. 그 결과 관람자는 대상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보다 여러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완전성을 이용하여 생성된 내면의 의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관람자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작품8】** , **【작품9】** , **【작품10】** , **【작품11】** 은 어떻게 보면 암석처럼 보일 수도 있는 전체적으로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뼈의 부분들을 확대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뼈의 색깔, 질감 특징을 가진 형상으로 형상화 하였으며, 관람자의 시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보일 수 있다. 본인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취하고 싶어 하는 행동을 표현한 것이다. 무언가를 감싸고 있거나 응크리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는 등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하지 않은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본 작품에서 불완전한 형상은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불완전한 자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불완전성 대상을 인식 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의문, 호기심을 통해 존재 의미의 보편적인 ‘무엇’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작품8】 안재은, <숨겨진 것>, 장지에 혼합재료, 34.8×27.3cm, 2020



【작품9】 안재은, <숨겨진 것2>, 장지에 혼합재료, 34.8×27.3cm, 2020



【작품10】 안재은, <숨겨진 것3>, 장지에 혼합재료, 27.3×22cm, 2020



【작품11】 안재은, <숨겨진 것4>, 장지에 혼합재료, 34.8×27.3cm, 2020

3) 이질적 결합

이질적 결합의 표현은 연구자의 작품의 특징 중 하나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이질적 결합은 새로운 충격과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연구자의 작품의 주된 모티브 중 하나인 선인장이 뾰의 형상과 이질적 결합을 통해 가지는 의미를 서술하고, 이질적 결합과 일치하는 개념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작품에 이질적인 결합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연작 작품이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뾰를 형상화한 뾰 모티브와 선인장의 관계이다. 선인장(仙人掌)은 깊은 산 속에서 도를 닦는 신선(仙)의 손바닥¹¹⁾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선인장은 덩고 메마른 사막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로 서식한다. 사람에게 삶의 필수요건인 수분은 선인장에게도 아주 중요한 생명유지를 위한 요소이다.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 선인장에게 가시는 뛰어난 방어 무기이다. 가시는 동물들이 먹기에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입혀 접근을 방해해 줄기 손상에 따른 물의 손실을 막아주는 큰 방어역할을 한다.

안전욕구는 선인장의 가시와 같이 여러 위험들을 방어하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하게 추구하는 욕구이다. 우리는 물리적 침입, 공격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전욕구가 충족되는 선인장은 본인에게 방어적 특징이 있는, 내재적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상화로 그려진다. 선인장의 내부에는 강한 생명력이 흐르는 것처럼 자유로운 이상을 선인장의 생명력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하여 내재적 불안을 가지지 않은 강인함을 형상화한 선인장과 내재적 불안을 가진 불완전한 자아를 형상화하는 뾰의 모티브를 결합시켰다. 이러한 이질적 조합으로, 식물에는 인간과 같은 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11) 네이버, 위키백과

인 관념에서 벗어나 두 오브제를 함께 병치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시켰다.

그리고 또 다른 연작의 이질적 결합의 특징을 가진 **【작품14】**, **【작품15】**, **【작품16】**은 일반적인 풍경 속에 나무의 뿌리들이 엉켜져 있는 형상이 공중에 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연작에서는 풍경을 주로 꿈을 연상할 수 있는 색감으로 표현하는데, 꿈과 같은 공간과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공중에 떠 있는 엉킨 나무뿌리의 형상의 조합은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신비감과 새로운 의문을 만든다. 두 연작의 작품들은 색감과 시각이미지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불안에 대한 감정에서 파생되었다는 것과 이질적 결합의 표현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질적인 결합은 초현실주의의 여러 표현기법 중에 하나인 데페이즈망 기법의 특징이다. 데페이즈망은 오브제의 일상적인 용도를 파기하고 엉뚱한 현실과 결합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전도시키는 방법이다.¹²⁾ 이 기법은 우리가 과거부터 경험한, 이미 지각하고 있는 것들을 뒤집어 낯설과 신비감 등의 효과를 낸다. 그리고 데페이즈망은 ‘나라나 정든 고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초현실주의에서는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는 것을 가리킨다.¹³⁾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신비함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꿈과 같은 화면을 구성했는데, 그들은 이런 그림이 관람자의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한 대표 작가는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¹⁴⁾이다. 르네 마그리트는 일상적인 사물을 정확한 묘사로 표현하여서 병치시키고 결합시켜 작품을 표현하였다.

12) 신현숙, 『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1992, p120

13)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14) 벨기에의 화가. 레신에서 출생, 브뤼셀에서 사망. 1927년 쉬르레알리즘 운동에 참가했고, 처음에는 키리코풍의 괴상한 물체나 인간끼리의 만남 등과 같은 풍경을 그렸다. 1936년경부터 이미 데페이즈망보다도 고립된 물체 자체의 불가사의한 힘을 끄집어 내는 듯한, 독특한 세계를 조밀(組密)하게 그리기 시작했고, 또한 말과 이미지를 애매한 관계에 둬으로써 양자의 괴리(乖離)를 드러내 보이는 방향도 보여주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대사전(인명편), 1998, 한국사전연구소 편집부



【도판3】 르네 마그리트, <심금>, 캔버스에 유채, 114×146cm, 1960,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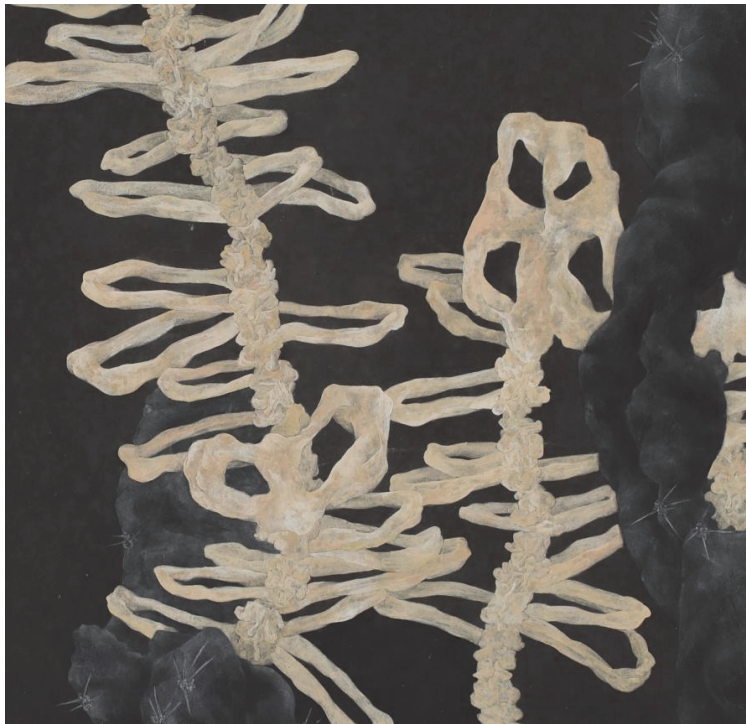
【도판4】 르네 마그리트, <불안한 날씨>, 캔버스에 유채, 54×73cm, 1929, 스코틀랜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르네 마그리트의 【도판3】 <심금>을 보면 구름을 담고 있는 큰 유리잔과 산이 보이는 풍경이 있다. 각각 하나씩 본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사물들의 조합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의문을 만든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어떻게 사물에 올려놓은 것이고, 구름을 담을 정도로 큰 유리잔은 어떻게 만든 것일까? 등의 여러 의문을 만들게 한다. 그리고 이 익숙한 사물들의 이질적인 결합은 낯설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 그는 낯선 장면을 연출하여 상식적인 고정관념을 깨버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장면은 신비함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시킨다.

【도판4】 그림 또한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하여 독특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평온한 분위기의 풍경 속에 토르소, 트럼펫, 의자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이 표현되어져 있다.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예기치 않은 변화가 생길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내포시키고 있다. 이 작품은 데페이즈망 기법을 이용해 여러 의문과 위기의식을 조성하였다.



【작품12】 안재은, <해치지 않아요>, 장지에 혼합재료, 160×70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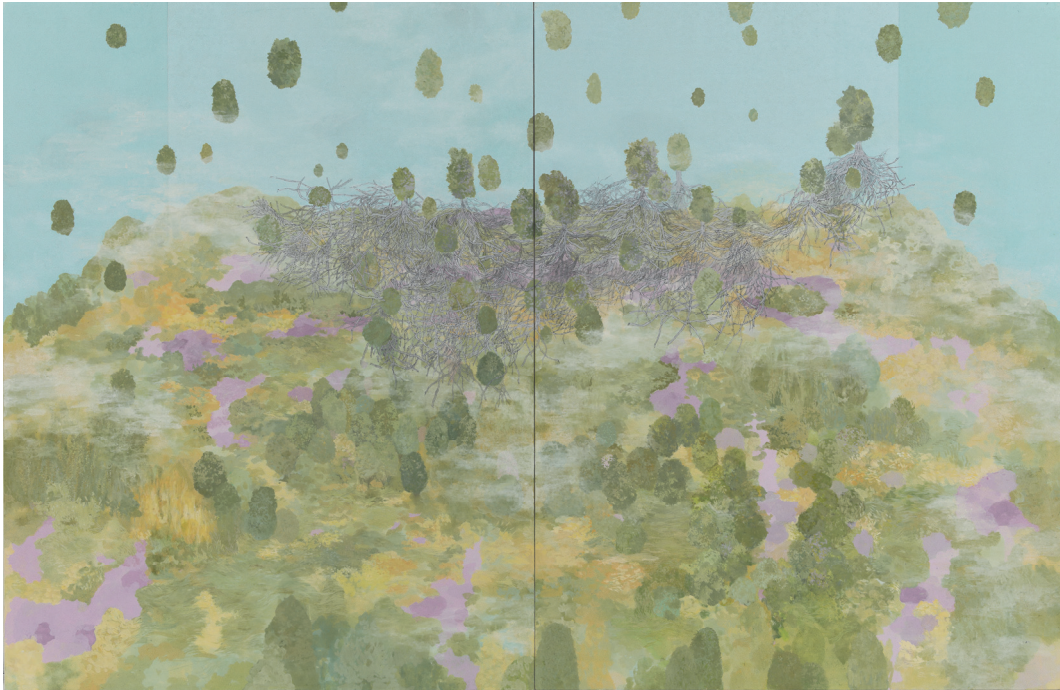


<확대 사진>

【작품12】 과 【작품13】 은 뼈의 형상과 선인장을 함께 병치시켜 이질적인 결합을 표현한 연작의 작품이다. 방어기능을 가진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선인장과 연약하게만 보이는 앙상한 뼈의 조합은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 본 작품은 강인하기만 할 것 같은 존재 또한 우리와 같은 내재적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닐까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 의문의 시작으로, 불안을 내재하지 않은 대상으로 표현되는 선인장과 인간의 불안을 형상화는 근본적인 뼈를 같이 배치해 표현하였다. 선인장은 뼈가 없는 식물의 한 종류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뼈를 함께 형상화함으로써 데페이즈망 기법의 특징인 이질적이고 낯선 느낌을 주었다.



【작품13】 안재은, <마주하다>, 장지에 혼합재료, 145.5×112.1cm, 2018



【작품14】 안재은, <가다듬기>, 장지에 혼합재료, 224.2×145.5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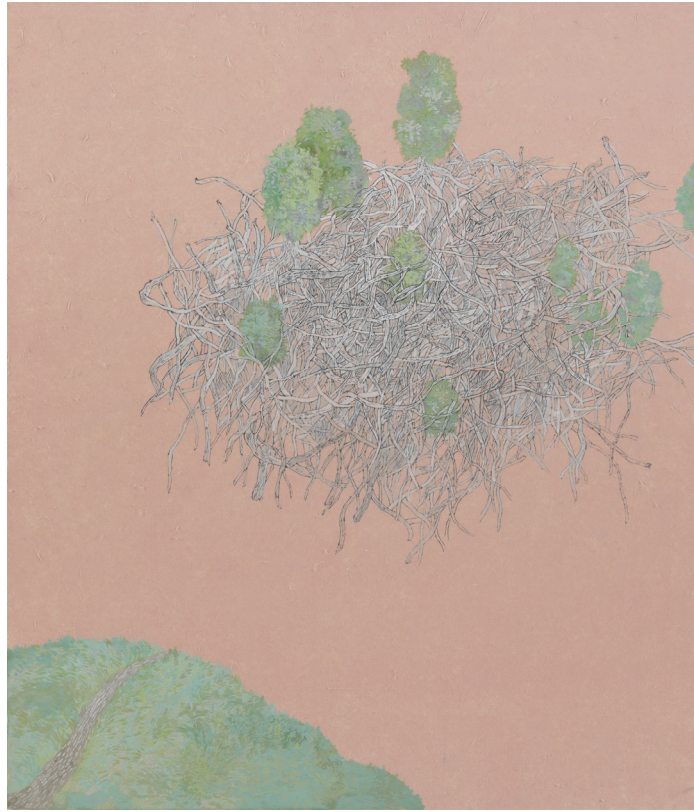
연구자의 두 번째 이질적 결합 표현의 연작 작품인 【작품14】는 풍경 속에서 뿌리가 영켜져있는 나무들이 공중에 비현실적으로 떠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결합은 테페이즈망 기법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꿈과 같은 색감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풍경은 불안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위안을 얻는 공간이다. 불안감에 힘든 상황을 외면하고 싶을 때에 감정의 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희망하기에 이를 아름다운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우리가 불안의 감정에 빠져있을 때 현재의 상황을 외면하고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품의 풍경을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불안이 존재하지 않다면 발전의 가능성 또한 없기에,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고자 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 상상의 공간은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보이기 위해 하늘을 3면으로 만들어 각진 틀로 간혀져 있는 공간처럼 표현하였고,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갇히지 않고 현실에 직면하기 위해 불안의 감정을 형상화하는 엉켜있는 나무의 뿌리는 그 공간에서 드러나고, 벗어나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지는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발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여 작업으로 표현하였다.



<확대 사진>



【작품15】 안재은, <동동>, 장지에 혼합재료, 45.5×53cm, 2018

【작품15】 또한 【작품14】와 유사하게 꿈을 연상할 수 있는 색감으로 표현된 풍경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나무의 형상을 볼 수 있다. 나무의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져 풀어질 수 없게 엉켜져 있다. 이 형상은 불안감에 생각이 복잡하고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답답하고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언덕의 일부분이 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설명하는 예시인 빙산의 일각과 같은 의미로 표현한 부분이다. 작품에 표현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언덕의 일부는 보이는 것보다 더 거대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16】 안재은, <In>, 장지에 혼합재료, 60×60cm, 2018

【작품16】은 【작품14】, 【작품15】와 연작으로 밤하늘에 별과 같은 느낌을 연상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작품은 불안의 형상화와 밤하늘 배경,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전에 설명된 연작의 작품들 보다 배경을 간소화하였고 공중에 있는 엉켜진 나무뿌리의 형태를 더 확대시켜 불안의 감정에 초점을 더 맞추었다.

그리고 금색의 자갈한 선묘는 나무뿌리 형태를 중심으로 퍼지게 표현하여, 대상을 별과 같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효과를 주었고 선묘의 흐름은 바람으로 인해 흩어지는 것과 같이 표현하여 보이지 않는 바람의 효과 또한 표현하고자 하였다.

Ⅲ. 결 론

현대의 우리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 선택과 다양성에서 오는 갈등, 내면과 타인에 의한 갈등으로 불안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다가온다. 본인에게 불안의 시작은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적인 심리일 뿐이지만, 그 개인적인 심리 또한 당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맞춰 발생한 것이기에 공통의 심리로 확장시켜 작품으로 표현해왔다.

연구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이 주제는 지속적인 고뇌를 통하여 불안을 내재하지 않은 대상으로 강인한 존재인 ‘선인장’과 인간의 근본적인 ‘뼈’의 이질적 결합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작품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불안을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 상태인 불완전한 자아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뼈’의 모티브를 가진 불완전한 형상의 작품들을 창조하게 되는 도화선이 되어 작품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불완전 형상은 불안을 내포하는 불완전한 자아로 상징되어 표현해, 불완전한 상태의 강인함과 가능성을 작업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불안에 대해 작업은 본인에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감정을 시각화시켜 내면에 있는 불안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왔다.

본 논문에서 본인의 작품 주제인 불안의 의의를 연구함으로써, 프로이트를 통해 불안은 무의식에 잠재되어져 있는 감정으로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의 경계를 지나 의식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큰 파동이라는 이론을 심리학적 측면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어의 주장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관심사를 자각할 때 불안은 찾아오며, 그 불안은 내면의 자기화를 실현시키는 주체성을 찾아가는 가능성이라는 실존주의적 연

구를 할 수 있었다. 불안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며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자아의 내적관계에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본인의 생각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업에 대한 더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전보다 구체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작품의 조형적 분석으로 이질적 조합 표현방법을 선행 연구한 화가의 작품분석과 이질적 조합의 특징을 가진 데페이즈망 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인만의 방식으로 불안의 주제를 가지고 더 다양한 표현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의미를 깊게 되새겨 볼 수 있었고, 본인의 작품표현에 이론적 의미 또한 다지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작품에서 불안을 주제로 불완전한 자아에 대하여 표현해왔는데, 앞으로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찾아가며 불완전자아의 가능성을 더 확장시키고, 작품의 의미들을 구체화시켜 본인만의 다양한 작품표현으로 활동을 이어나가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신현숙, 『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1992
- 안상혁, 『불안, 키에르케고어의 실험적 심리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 아르네 그린, 『불안과 함께 살아가기 : 키에르케고어의 인간학』, 하선규 역, b, 2016
- 앨런 호위츠, 『불안의 시대:역사 이전부터 불안은 존재했다』, 이은 역, 중앙북스, 2007
-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역, 열린책들, 1998
- 짐머만,F, 『실존철학』, 서광사, 1990
-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인플루엔셜, 2016
- 리키 이매뉴얼, 『불안』, 김복태 역, 이제이북스, 2003

학위논문

- 김보연, 「무의식 속에 나타난 불안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 김보람, 「불안한 존재로서의 자아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 권지은, 「‘불안’의 극복을 주제로 한 회화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15
- 손유진,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통한 무의식의 세계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works about potential anxiety

- Focused on my works -

An, Jae Eun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was studied by analyzing works for a master's degree titled 'at that place' in 2020 based on works from graduate school since 2017.

The researcher selected anxiety as a topic and studied its expression method of work since I was interested in anxiety among various emotions we feel. Anxiety has existed through all ages and it has been appeared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cultures. According to the historic background, anxiety became a driving force for inventions or a medium to understand the essence inherent to the ego. As I expressed works on anxiety that appears in various forms, I felt that anxiety plays an very important role in finding our own identity on our own while living.

Based on this, questions of 'where does the anxiety that we normally feel but seems to come suddenly come from' and 'what role does

anxiety play in our lives' arise. With this reason, I analyzed and studied my own thought on anxiety and theories studied through psychology and existentialism philosophy more concretely. Through this process, I conducted the study on how the anxiety that is embedded in unconsciousness affects us and I described how the meaning of anxiety I felt was expressed with certain formative characteristics.

My own work described in this paper provides a time of comfort to see ourselves by visualizing and facing emptiness and suffering due to the anxiety which is invisible emotion. And the anxious ego of incomplete and ambiguous image in the work was expressed as the inner self through the anxiety that is embedded in our unconsciousness to show the possibility and viewers can project it as their own image.

The beginning of the anxiety in researcher's work was just a personal psychology acting in the unconsciousness, but such personal psychology is also created according to the time we are currently living. Therefore, I hope this work can gain the sympathy of others with their own expression way by expanding anxiety into a common psychology.